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</b> <b>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<b>배포일시</b>	2018. 3. 9(금) 총 1매(본문1)	
<b>담당 부서</b>	첨단항공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서정석, 주무관 박일욱 • ☎ (044) 201-4253, 4226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'드론기업 지원한다더니...판교테크노밸리 시험비행 금지 논란' 보도 관련

□ 국토부는 업계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등에 드론 시범공역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\* 지자체 수요조사(2.23~3.9)→서류검토 및 현장실사(3월)→최종평가 및 선정(4월)

○ 시범공역\*은 시험비행허가 등 인·허가사항을 일괄의제하여 고도제한 및 비가시권 비행금지 등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자유롭게 기술개발·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\* 현재 강원 영월, 충북 보은, 경남 고성, 전남 고흥, 전북 전주, 대구, 부산 등 7개소 운용 중

○ 수도권 지역에 시범공역을 추가하게 되면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한 기업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드론 시험비행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< 보도내용 (매일경제, 3.9(금)) >

- ◆ “드론기업 지원한다더니...판교테크노밸리 ‘시험 비행 금지’ 논란”
- 국토부가 추진한 드론기업지원허브(판교)에서 테스트할 공간 부족
  - 판교지역은 서울공항(軍) 인근으로 안보·비행관제 등 사유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
  - 입주기업이 인근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절차 번거로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서정석 사무관(☎ 044-201-42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